

# 함평군, '2021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막

### '지구와 인간의 공존' 주제 아름다운 국화 향연 함평 엑스포공원 일원...11월5일부터 21일까지

전남의 대표 축제인 '2021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11월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함평 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서 '지구와 인간의 공존'이란 주제로 아름다운 국화 향연을 펼친다.

이번 국향대전은 '지구와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만큼 '국화'와 '환경'이라는 주제를 접목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주요 축제장인 함평엑스포공원은 지구본 손 모형, 바다거북과 물고기, 쑤나무 희망나무 등 조형물부터 600여 점의 야간경관 조형물도 설치돼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국화의 매력을 작품으로 살펴보는 분재작품 전시관과 대한민국국화동호회 작품관도 별도로 마련되며, 관람객을 빛의 세계로 안내할 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전시도 준비돼 있다.

특히, 함평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취소됐던 국향대전이 오랜만에 관람객을 맞이하는 만큼 '안심·안전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출입구에 '이벤트스루' 게이트를 설치해 모든 입장객을 대상으로 전신 소독을 실시한다.

축제 운영 또한 온라인 진행 방식을 확대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다. 축제장을 찾지 못한 관람객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개막식과 축제장 내에 전시된 다채로운 국화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축제장으로부터 물리는 관광객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존 함평 엑스포공원에서만 이루어졌던 축제 무대를 넓혔다.



읍 시가지에 인피오라타길 바닥을 꽃으로 장식)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보부상 레크레이션, 특산물 경매 등 다양한 행사가 축제장 밖에서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군민 지정요일 관람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축제장 방문 계획이 있는 군민들은 미리 해당 읍면이 출입 가능한 요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함평군이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을 위해 추진한 '함평전지길'부터 '함평자동차극장'에 이르기까지 이번 국향대전으로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돼 있다.

이상의 함평군은 "함평대전을 개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며 끊임 없이 회의를 거듭해 준비했다"며 "형형색색의 국화꽃으로 가득한 함평의 들뜬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걸으며 위드 코로나 시대의 첫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전남일자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센터장 고광주)가 지난 22일 (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라남도일자리종합센터(센터장 박선희)와 '상호이해와 협력체계 수립을 통한 발전적 운용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연계 지원, 상호 정보 교류, 기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실현하는데 합의했다.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는 지난 2020년 초 개소한 이후 청년을 포함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정보안내,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 '청년이 바라는 지역 무안' 실현 간담회 성료

무안군은 지난 23일 해제주민다목적센터에서 '청년이 바라는 지역 무안'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협의체 간담회는 청년들이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직접 발굴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행정책을 찾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산 군수와 청년협의체 2기 위원, 청년단체 대표 15명,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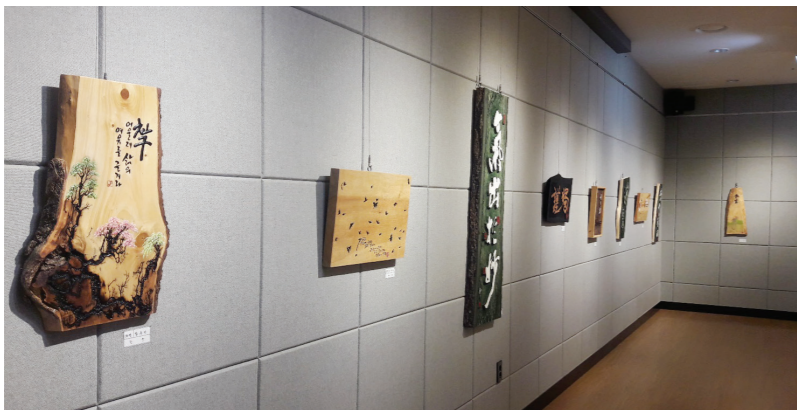
김산 군수는 "3만 무안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발굴된 정책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남약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을 활용한 4차 산업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들의 취업 걱정을 덜어드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정성담긴 서각공예품 보러 오세요"

### 영광산림박물관 제3회 어울림 서각회 정기회원전 개최



영광불갑사 관광지 내에 위치한 영광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오는 11월 8일까지 '제3회 어울림 서각회 정기회원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죽은 나무에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공예작품으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숲가꾸기와 위험목 제거사업에서 발생한 벌채목을 이용하여 전통 서각, 회화 서각 등 다양한 작품으로 승화시켜 산림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서각은 글씨나 그림을 나무, 돌, 대나무, 상아, 옥 등의 재료에 도구를 이용, 새김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서각과 현대서각이 있으며, 이외에도 목간판, 전각 등이 있다.

이는 서예와 달리 서예화한 것에 다시 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작업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서예와 조각까지 총동원하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종합예술이다.

김행보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공식행사 없이 짧은 기간 동안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16인의 작가가 참여하여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만든 작품 40여 점을 전시한다"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다양한 작품을 관람하시고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영암군, 내년 1월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영암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 지급대상자 지원 확대와 2022년 1월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2010년부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2017년부터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2010년에 최초 3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2013년에는 5

만원, 2018년에는 7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2022년 1월부터 3만원이 인상되어 월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2022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도 확대(보국수훈자, 순직공무원 유족, 고

영제후유증 사망자의 배우자 등)하여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유공자·유가족 예우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등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신안군, 문화가 있는 날 '김환기 고택을 간다'

신안군은 10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김환기 고택을 간다'라는 주제로 토코쇼를 개최했다.

27일 1004섬신안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진행되는 행사는 신안군 안좌면 출신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

화 김환기 화백의 생가에서 '김환기 고택에서 추억하는 김환기 예술'이란 주제로 전남도립미술관 이지호관장과 광주시립미술관 김은영부장, 김환기 고택의 달과 별展 참여작가인 우용민씨가 참여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